•連 載•

韓國燈火史 (11)

A Light Lamp History of Korea

崔 漢 燮

지난해 本誌 10月號를 끝으로 10回에 걸친 連載가 一旦 中斷된 「韓國의 燈火史」는 끝을 맺기위해 이번號부터 다시 連載된다. 지난回로 高麗時代까지를 끝내고 이번11回부터는 近世 朝鮮朝의 燈火史가 展開된다.

〈註編輯者〉

第4章 近世의 前期

여기에서 近世의 前期라 함은 叙述의 便宜上 朝鮮朝 開國으로 부터 宣祖末年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高麗와 朝鮮의 교체는 단지 王室과 王朝의 易姓的인 革命, 즉 일종의 王權交替에 불과하였으므로 近朝鮮의 政治·經濟·文化·社會등 모든 部門이 高麗的인 기반위에서 서서히 改革과 再組織이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第9代 成宗朝에 이르러 近朝鮮的인 性格과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時代에는 특히 宋의 性理學이 발흥하여 佛敎中心의 文化가 儒敎中心으로 바뀌고 治者階級에 훌륭한 人物이 많이 나와서 世宗과 世祖, 成宗時代에는 典章文物이 크게 빛났다.

그러나 뒤에는 오랜 太平속에 나쁜 惰性이 싹트기 시작하여 燕山君의 秕政, 또는 四色黨爭의 禍등이 겹쳐 文物이 쇠퇴해 갈 무렵 第14代 宣祖25年에 壬辰, 丁酉의 亂이 일어나서 前後 7年동안 戰亂이 國土를 휩쓸었다.

王都 漢陽을 비롯하여 全國의 大小都邑과 廟寺는 兵火로 불타고 新羅, 高麗朝를 통하여 이어 내려온 많은 文物들이 損失되었다.

經國大典과 燈火

朝鮮朝 建國以來 80余年間의 연구끝에 睿宗 元年에 완성, 成宗2年辛卯에 刊行되어 同3年 부터 시행된 「經國大典」에 의하면 宮殿의 燈燭類는 主로內侍府에서 管掌하였다.

즉 內侍府(宮庭府의 監臘, 傳命, 守門, 消掃따위의 일을 맡은 官司)의 從二品의 尙膳員以下 많은 官員中에 從五品에 大殿의 燈燭房多人이 있고 正六品의 尙洗員 4명 가운데서는 王妃殿의 燈燭房이 그리고 從六品의 尙燭員 4명에는 世子宮의 燈燭房이 있다.

大殿의 燈燭房多人이란 燈燭을 맡은 職所의 職務에 종사하는 內侍府의 職員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經國大典의 吏典에 記錄되어 있지만 같은 吏典中에 內命婦의 從八品의 職責에 「典燈」이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燈燭은 下級의 官員이 담당하였으나 大殿, 王妃殿, 世子宮과 같은 중요한 곳의 燈燭은 從五品, 正六品, 從六品등의 비교적中間 品階의 벼슬아치(대개 宦官)가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工典項에는 義盈庫에 燭匠 四員을 둔다고 하였는데 從五品衙門의 이 義盈庫에서는 기름, 꿀, 黃蠟, 素物, 胡椒등의 物品을 담당하였고 高宗2年(1865年)에 편찬한 大典會通의 吏典, 司宰監 등의 項에 의하면 司宰監은 「宮中에 需要되는 魚類, 獸肉 食鹽, 燃料 및 炬火등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炬火는 지금은 폐지함)고 하였다.

따라서 朝鮮朝에 있어서 각 宮殿이나 官衙의 燈燭房에 필요한 燈油나 蠟燭類는 義盈庫에서 그리고 相炬는 司宰監에서 調達管掌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工典項에는 各道 觀察使以下의 地方官衙에는 油具匠 한사람씩을 두었고 燈具類는 治匠, 鍮

匠, 木匠, 紙匠, 漆匠, 沙器匠등에 命하여 分擔 製作하였고 中央官署(義盈庫)에서는 이러한 各道의 産物을 收集調達하는 것이 主目的이고 직접 제작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또 工典 京役吏項에는 「各 고을의 鄕吏는 每年 輪番次例로 上京하여 工曹에서 各 官司에 分定하는 木炭과 柴木을 준비한다(司宰監에는 二百三十三人을 分定하고 一人이 每一個月에 멸나무 五十七斤 二日마다에 杻炬一柄을(重量은 十斤이며 남은 것이 많으며 或 三日에 一柄을 納入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每年 輪番次例로 上京하는 鄕吏가운데233명은 司宰監에 配定되어 멸나무와 특히 杻炬는 한 사람이 2日마다 1柄을 納入하되 그 1柄의 重量은 10斤이라고 하여 杻炬를 研究하는데 매우 중요한 記事라고 하겠다.

禮典의 婚嫁項에는 또 婚事에 대하여 規定하고있는데 그中 「婚姻날 저녁에 드는 炬火는 二品官以上은 十柄, 三品官以下는 六柄으로 하되 모두 父의官職에 좇는다(新婦집에서도 같다)라고 하였는데 婚禮에 사용되는 炬火(뒤에는 燭籠)의 數는 新郎 新婦의 父의 品階에 따라서 制限되었다.

이보다 먼저 太宗王代에도 婚夕의 炬火에 대해서 定한 것이 있고 또 世宗王代에는 葬禮時의 炬火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規定한 實例가 있는데 이들의 記錄에 의하면 朝鮮朝 初期에는 이러한 吉凶行事에 杻炬가 많이 사용되었 으나 後期에는 燭籠(紗籠)으로 바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布燭과 杻炬

世宗實錄 世宗11年 3 月末에는 世宗이 承政院에傳旨하여 옛날에는 宮闕內에서 紅大燭을 常用하였으나 太宗時에 비로소 이를 杻炬로 바꾸어 儉素한 氣風을 垂範하였으나 杻炬는 불꽃이 盛하여 잠시라도 조심을 게을리 하면 불티가 떨어져 장막에 옮겨붙을 염려가 있으니 紅大燭과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蠟을 五升布에 발라서 每日 大殿과 東殿에 1枚씩 올리도록하되 이것을 布燭이라고 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傳旨承政院 古者 宮禁之內 常用紅染蠟爲燭 謂之紅大燭 太宗時 始對以杻炬 崇儉之意至矣 然杻炬火易盛 故頃刻不愼則 燼焰亂落 恐或延燒幃帳 今不必如紅大燭 但用蠟塗於五升布 每一日進大殿東殿 各一枚 各之曰布燭)

太宗時까지에는 蠟을 붉게 染色한 紅大燭을 사용하였다가 太宗의 命으로 杻炬로 바꾸었으나 世宗은 杻炬는 火災의 위험이 있다하여 布燭으로 바꾸었는데 以後 宮殿이나 私家의 뜰과 그리고 帳幕 등에서는 杻炬대신에 燭籠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世宗이 이렇게 火災를 염려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즉 實錄에 의하면 같은 3월초에는 漢城의 中部長通坊에서 失火로 40余戶가 延燒되었고 또 3월말에는 咸吉道永興府에 있는 軍器庫에서 火災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五升布란 中等品質의 베나 무명을 말한다. 今村鞆著 「朝鮮漫談」에는 「五升布(或은 二升布 或은 十升布) =一升이란 布帛尺 寸間의 날(布의 縱絲)이 60本이란 뜻이다. 五升布라면 1寸에 300本의 날을 쓴 천을 말한다. 綿布, 麻布는 貨幣대신 쓰여졌는데 官納品은 五升布가 標準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布燭은 여기에 蠟을 먹여 蠟燭의 代用으로 한 것인데 日本에서도 「鎌倉時代」에 紙燭이 사용된 것이 있었는데 거의 같은 時代이므로 비슷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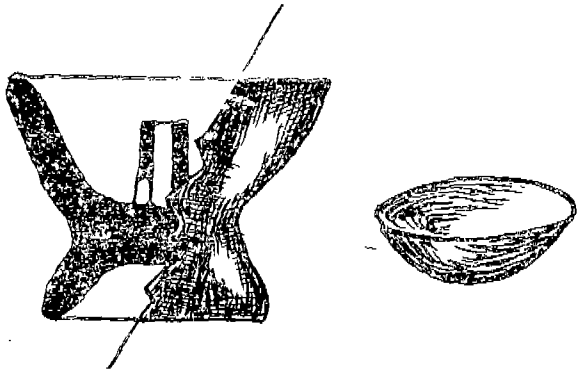
그리고 이 時代에도 燭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어서 燭類의 出納은 엄중한 것이었고 그의 濫用도 禁止된 것 같다. 文宗實錄 文宗元年五月에 보면 文宗은 承政院에 命하여 闕內 各司藏火之處에서 밤에公事가 아니면서 燃燈하는者가 있을 때에는 科罪하라고 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傳敎承政院曰 闕內 各司藏火之處 夜有非因公事燃燈者 並令科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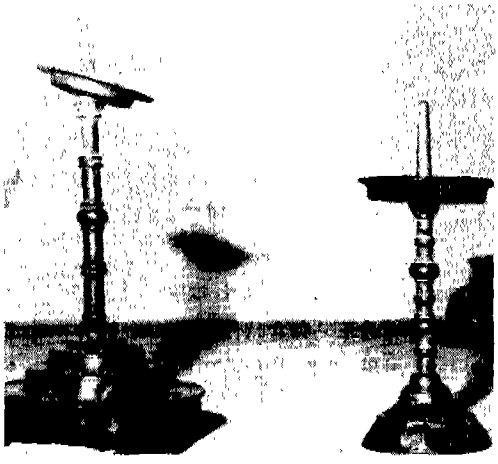
代表的인 燈器

京電燈火史料室에서 收集한 것 가운데 朝鮮朝前期의 燈器라고 認定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

粉青沙器燈盞, 定山窯址出土小燭台, 青銅竹節燭臺 白磁(灰釉)釣燈盞, 河東窯出土燈盞, 鐵製組立式燭臺, 製鐵燈檠, 白磁油壺, 青銅龜趺燈架(洪濕元年銘) 粉青沙器牛角形기름받이殘缺, 鐵製四足燭臺, 鐵製(木製臺附着)麻燭兼用燈檠(前述 : 女眞在家僧部落의傳世品)



〈그림－56〉 河東窯出土燈盞(左)과 粉靑沙器燈盞(右)



〈그림－57〉 靑銅竹節燭臺

河東窯와 粉靑沙器燈盞＝**그림56** 左側은 河東窯址에서 出土된 陶製의 燈盞이다. 1941년경 京電燈火史料室에서 入手한 것인데 지름 8센티쯤, 높이5.5센태쯤이다. 乳灰白色으로 釉面이 까칠까칠한 것이다.

燈盞은 좀 높은 高臺가 있고 盞 中央에는 筒狀의 심지꽂이가 달려 있고 그 筒狀의 밑부리에는 심지를 넣는 작은 구멍이 있다.

그림 右側의 작은 접시는 귀얄紋 粉靑沙器燈盞이다. 提燈이나 燈籠에 사용되는 燈盞은 술盞과 같이 멋있는 彩釉를 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림의 燈盞도 그 一例인데 燈盞의 이와같은 멋 있는 것은 술盞으로도 使用하여 대포 술盞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보았으나 한결같이 高臺가 없는 것이 흠이다. 물론 燈盞으로서의 用途에는 高臺가 필요치 않는 경우가 많다.

靑銅竹節燭台：**그림57**의 靑銅燭臺는 그 原形을 高麗時代에서 求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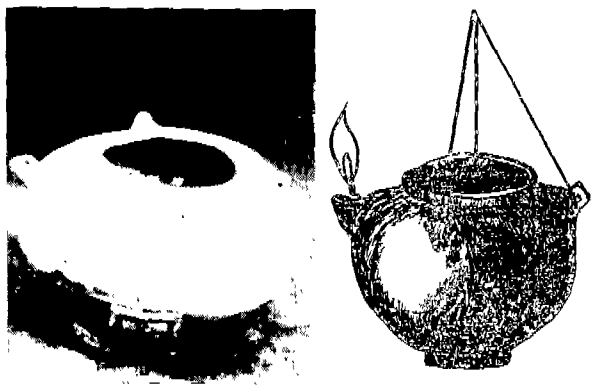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朝鮮朝의 前後期를 通하여 現代까지 내려 온 것으로 燈器로서는 가장 보편적이라고 일컬을만한 燈器中의 代表的인 것이다.

이 사실은 「高麗圖經」의 설명과 朝鮮朝時代의 「景賢堂宣醞圖」「康寧殿賜日夜讌圖」또는 「耆社慶會帖」등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進饌儀軌」나 「五禮儀」등의 圖解에서도 同一形式의 것이 있으며 현재에도 서울鍾路를 비롯하여 이 그림과 같은 大小真鍮製燭臺가 판매되고 있다.

圖示한 燭臺는 國立中央博物館에 展示되고 있는 物品인데 같은 모양의 燭臺中에서는 드문 高麗末에서 朝鮮朝前期의 것으로 推定되는 靑銅燭臺이다.

京電燈火史料室에서도 이와같은 燭臺를 收藏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와같은 비교적 小型의 것은 個人의 室內用인 것 같은데 그 使用方式은 앞의 高麗圖經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 靑銅燭盞는 高麗時代의 光明臺에 比하면 짜임새가 적은 것이 흠이다. 그림 34에 나오는 靑銅雙獅子燭臺가 線이 날카로우면서도 힘차고 安定感이 있을 뿐만 아니라 高臺에 상당하는 부분중 아래의 一段이 流麗한 線의 흐름으로 이루어진 날씬한 3足인데 反하여 朝鮮朝時代의 것은 발없는밋밋한 高臺式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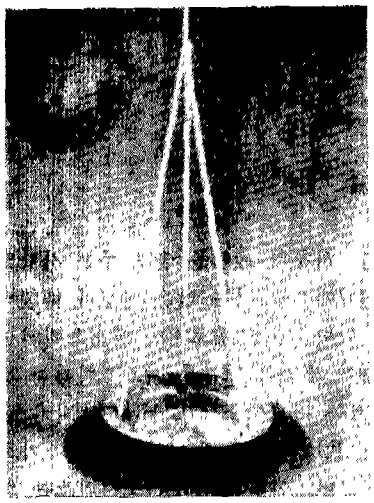
〈그림－58〉 白磁釣燈盞(左)과 그 使用例(右)

白磁釣燈盞＝**그림58**의 左側은 京電燈火史料室에서 「朝鮮朝初期灰釉燈盞이라고 命名한 것이다. 이와같은 모양의 燈盞은 珍貴한 것으로 京電燈火史料室의 15年間의 수집활동에서 얻은 하나밖에 없는 燈

蓋인데 다행히 최근까지 韓電에 保存되었다가 文公部에 이관되었는데 移管當時 「白磁素文耳付油瓶」으로 분류되고 말았다.

그러나 岸씨는 이것은 燈蓋이라고 하여 그 使用法은 그림58의 右側에 圖示하고 있다.

이와같이 끈으로 다는 燈蓋(釣燈蓋)의 原形은 高麗時代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59〉 靑磁釣燈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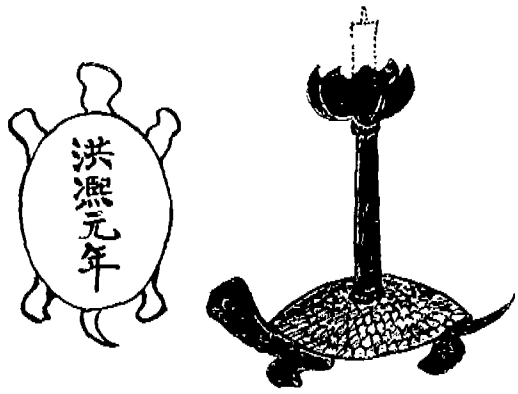
靑磁釣燈蓋＝**그림60** 의 靑磁釣燈蓋은 역시 韓電에서 文公部에 이관 된 名品의 하나인데 移管當時 「靑磁有孔四形燈蓋」으로 분류되었다. 이 세개의 구멍이 바로 끈을 달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高麗時代의 것은 거의 上品의 靑磁로서 이것을 다는 끈은 銀鎖등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靑磁釣燈蓋으로 미루어 볼 때 앞의 그림 58의 白磁釣燈蓋의 모양이나 그 使用法도 理解가 갈줄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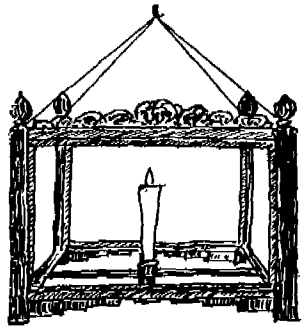
靑銅蓮華燭座龜趺燭臺＝本品은 靑銅製로서 龜趺背部에 圓幹을 세웠고 燭座는 蓮花모양을 하고 있는 높이 25센티쯤의 燭臺이다.

京電燈火史料室이 수집했던 3千點중에서 이 종류로서는 유일한 것이었다. 文公部에 이관될 당시까지만 하여도 韓電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으나 사진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림 60 左側에 圖示된 바와 같이 龜趺의 腹部에는 「洪熙元年」이라는 銘刻이 있다.洪熙元年은 1425年 朝鮮朝 世宗7年이며 洪熙의 年號는 明의 仁宗 即位의 해에 相當한다. 지금으로 부터 559年 前의



〈그림－60〉 洪熙銘靑銅蓮華燭座龜趺燭臺



〈그림－61〉 朝鮮朝時代의 宮門燈

작품이다.

이 燭台는 보통의 日用品은 아니고 寺院의 佛前用이거나 또는 祀堂用으로 한짝 以上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宮門燈＝太祖完錄 太祖七年八月條에 開國功臣 鄭道傳, 南誾등이 李太祖의 八男 芳碩을 世子로 삼음에 있어 다른 諸王子를 一網打盡하려다가 五男인 芳遠에게 看破됨으로써 芳遠一派가 奮起하여 未然에 이를 방지하고 安社의 功을 세웠다는 記事가 있다.

그런데 鄭道傳등의 陰謀가 失敗한 원인이 宮門의 燈때문이었다는 것이다. 實錄에 依하면 「…… 副承旨卞仲良 在內 稱上病篤 急召諸王子入則以內奴及甲士攻之 道傳聞等外應 約以已巳擧事…… 至初夜 有人自內出曰 上疾劇欲避病 諸王子速入內 從者並勿許入 …… 請安君 …… 旧制 宮內諸門夜必張燈 至是見宮門無燈 益疑之 …… 請安君稱腹痛……馳馬出宮城西北……」이라고 하였다.